

---

# 미궁

작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성균(시흥 합현고등학교 교사)  
성지현(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계절 1318문고 101  
고명섭 장편소설



---

■ 주 제 어 #고전 #그리스신화 #미노타우로스

■ 분 류 문학 > 청소년문학 > 고전 새로 쓰기 > 논술 > 철학

---

## 도서 소개

미궁(迷宮).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곳을 말한다. 이 소설은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잡으러 미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리스 신화 중 매우 유명한 '테세우스'의 영웅담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신화 속 인물에 대한 재해석이 돋보인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여 주며, 괴물인 미노타우로스가 테세우스에게 '너와 나는 같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과정에서 테세우스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탐구한다. 자신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지, 왜 자신이 악당을 물리쳤음에도 자신을 정화시켜야만 하는지 등에 관해 묻는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답을 하지 못한다. 수없이 던져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테세우스는 괴물을 잡으러 미궁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미궁에 빠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궁은 빠져들수록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타래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미궁에서 해답을 찾아 나오기 위해 어떤 실타래를 준비해야 할까? 소설을 함께 읽으며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미궁에서 무사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만의 실타래를 준비해 보자.

##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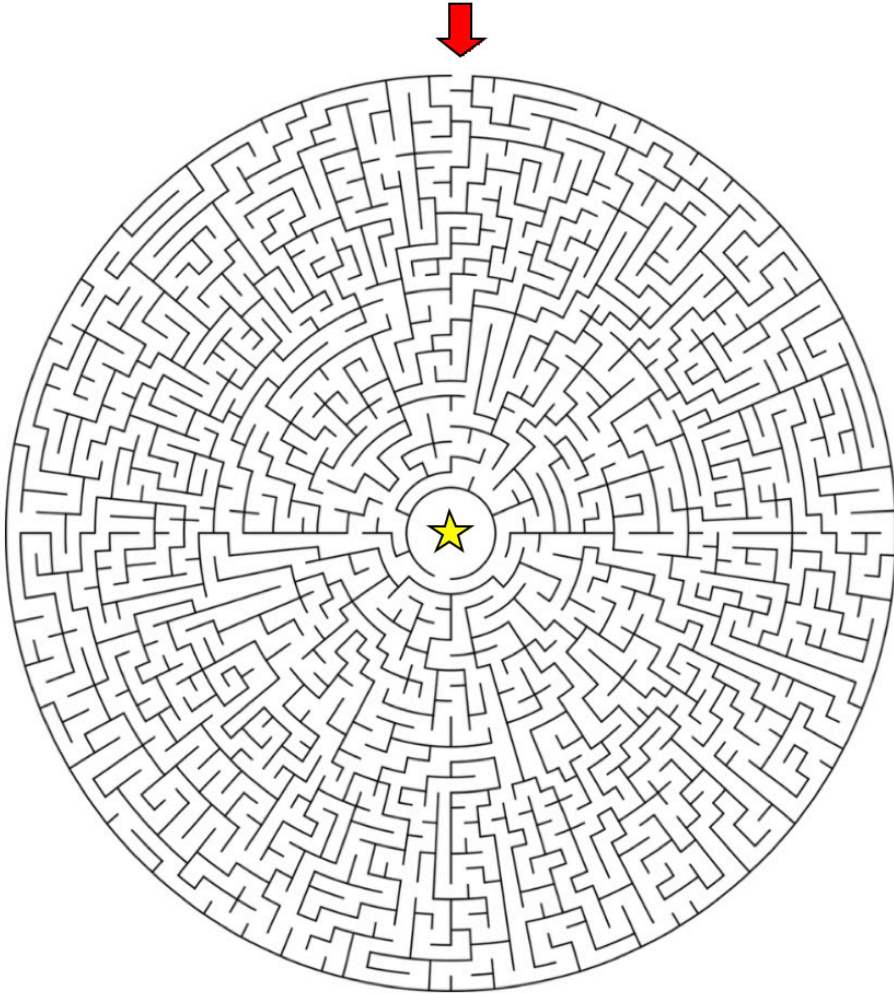
괴물 미노타우르스를 잡으러 가는 여정에서 테세우스는 크게 성장한다. 경험이 쌓여 갈수록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깊어지고, 그 질문을 따라 들어가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실타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궁으로 들어가게 했던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질문을 마주하는 연습, 그것이 우리가 미궁에서 살아 돌아오는 길이다.

- ① 소설을 읽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③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의 오류를 찾아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내면화할 수 있다.
- ④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미로 찾기	1차시
독서	'시간 따라, 사건 따라' 인물들의 갈등 관계 파악하기	2차시
	'같은 말, 다른 인물' 속마음 파헤치기	3차시
	7~9장 읽고 활동하기: 두려움과 용기의 의미, 동서양 설화의 만남	4차시
	10~12장 읽고 활동하기: 미노타우로스와 이카로스 생각 읽기	5차시
독서 후	소크라테스 대화로 진리 탐구하기	6~8차시
	나의 '미궁'은?	9차시
	나의 묘비명	10차시

미로를 보고, 다음의 활동을 해 봅시다.



1. 출입구(빨간 화살표)로 들어가 목적지(노란 별)까지 도달하는 길을 찾아봅시다.

2. 여러분이 미로 속에 있는 노란 별을 들고,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각자 아이디어를 발표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해 봅시다. (단, 전자기기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소제목에 따른 등장인물 관계도 및 사건을 아래 카드 형식으로 정리하고, 온라인 수업 진행 시, ‘패 00’의 ‘타임라인’등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배치해 봅시다.

1. 소제목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3~4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등장인물 관계도 및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1. 미궁	2. 모험	3. 괴물
<p><b>인물</b>  <b>테세우스:</b>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 실꾸리를 가지고 미궁으로 들어감  <b>아리아드네:</b> 테세우스에게 실꾸리를 건네주고 라비린토스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함.</p> <p><b>사건</b>  미궁으로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아리아드네는 실꾸리를 주며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함.</p>	<p><b>인물</b></p> <p><b>사건</b></p>	<p><b>인물</b></p> <p><b>사건</b></p>
4. 비극	5. 어둠	6. 징표
<p><b>인물</b></p> <p><b>사건</b></p>	<p><b>인물</b></p> <p><b>사건</b></p>	<p><b>인물</b></p> <p><b>사건</b></p>

7. 마음	8. 만남	9. 탄생
인물	인물	인물
사건	사건	사건

10. 대결	11. 추락	12. 작별
인물	인물	인물
사건	사건	사건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카드 번호를 나열해 봅시다.

( )→( )→( )→( )→( )→( )→  
 →( )→( )→( )→( )→( )→( )

1. 다음은 ‘선과 악’에 관한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각각 말하는 인물과 상황, 테세우스의 반응을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경험을 들어 말해 봅시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 위대함에 필적하는 폭력성과 잔인성을 짝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선과 악은 한 뿌리이고 악은 선이 남긴 그림자, 선의 뒷면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악을 이겨 내려면 선은 험난한 시련과 단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젊은 테세우스의 생각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테세우스의 눈에 영웅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9쪽)

미노타우로스의 말

“내 둔한 머리가 아는 걸 네 빠른 머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나?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악한 것과 연결돼 있다. 선의 뿌리는 악이다. 네 안의 저 깊은 곳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나? 미친 듯이 날뛰는 황소가 심장을 향해 뿔을 들이대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단 말이나? 그것이 너를 날뛰게 만든 것이다. 네 안에 든 그 미친 짐승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면 너는 언젠가는 그 짐승에게 받히고 말 것이다.” (128쪽)

## 1. (가), (나) 자료를 읽고, '두려움(공포), 용기, 지혜'의 의미와 관계를 자신의 입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가)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 두려움이 없다는 건 무모하다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이다. 지혜는 이 실처럼 연약하지만 끝까지 데려다준다. 지혜로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 지혜로운 자만이 용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내가 섬겨야 할 신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지혜의 신이다. 지혜가 없는 용기는 쓸모없는 것이고 꺾테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용기는 미덕이 된다. 용기에 성찰의 눈을 달아 주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심장의 활력을 넣어 주는 것이 용기라 할 수 있겠지.' (87쪽~88쪽)

(나) 영어 'nerve' 는 명사로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다. 불안과 용기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왜 한 단어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일까?

1. 신경(神經) - 말초신경을 형성하는 신경섬유의 다발.
2. 긴장, 불안, 두려움
3. 용기, 대담성
4. 뻔뻔스러움

**선생님께** '두려움, 용기, 지혜'란 어휘를 꼭 넣어 2~3개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합니다.



## 2. 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에게 부탁했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리지 말고 장성할 때까지 길러 주시오”

아이게우스는 왕의 자리를 노리는 동생 팔라스의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을까 걱정이 되었다. (중략)

아이게우스는 자기가 차고 있던 칼과 신고 있던 가죽신 한 켤레를 커다란 돌 밑에 묻었다.

“아이가 커서 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면 이 징표들과 함께 나에게 보내시오.”

(중략) 아이트라는 아이 이름을 테세우스라 짓고는 아이의 외조부 피테우스와 함께 키웠다.

“아이들이 아버지도 없다고 나를 놀려요. 내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중략)

테세우스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만큼 컸다는 판단이 들자 어머니 아이트라는 아들을 데리고 아이게우스가 남긴 징표가 묻혀 있는 곳으로 갔다. 아이트라는 커다란 돌이 놓인 곳 앞에 멈추었다. (중략) 테세우스는 두 팔에 힘을 주고 돌을 기쁘하게 들어 올렸다. 양팔을 펼친 것보다 넓은 돌 밑에서 황금이 박힌 칼 한 자루와 가죽신 한 켤레가 나왔다. (중략) 날이 따뜻해지자 테세우스는 아버지의 가죽신을 신고 징표인 칼을 허리에 차고 어머니와 외조부 피테우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102쪽~109쪽 부분 발췌)

(나)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주몽이 떠난 뒤 유리가 태어난다. 유리는 어릴 때부터 새총을 잘 쏘았는데, 거리에 나와 놀면서 참새를 맞추려다가 그만 물 낚는 여인의 물동이를 맞혔다. 여인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례한 짓을 한다며 유리를 나무랐다. 유리는 부끄러워하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 예씨에게 아버지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다. 예씨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卒本)에 나라를 세운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부여로 떠나기 전에 “만일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거든 내가 지녔던 유물을 일곱 모가 난 돌 위 소나무 밑에 감추어 두었으니, 그것을 찾아 내게로 오게 하시오. 그러면 그를 내 아들로 맞겠소.”라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 주었다. 유리는 이 말을 듣고 곧 산골짜기를 헤매다니며 유물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에 있던 유리가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해서 가 보니 주춧돌이 일곱 모로 깎여 있었고, 그 돌 위에 세워진 기둥은 다름아닌 소나무 기둥이었다. 유리는 곧 기둥 밑의 흙을 파고 끊어진 칼 도막을 하나 찾았다. 유리는 그것을 가지고 옥지(屋智)·구추(句鄒)·도조(都祖) 등 3인과 함께 졸본으로 가서 동명왕을 만났다. 유리가 끊어진 칼을 바치자, 왕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반도막 칼과 맞추어 보았다. 비로소 한 자루의 칼이 이루어지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太子)로 삼았다.

1)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테세우스	기준	유리
	아버지와의 이별	주몽이 예씨 부인을 떠남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	아버지의 부재 깨달음	
	징표	
	징표를 숨긴 장소와 찾는 과정	

2) 두 이야기에 징표로 나타나는 소재 ‘칼’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써 봅시다.

## 1. 미노타우로스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이런 곳에 혼자 들어올 정도로 강심장이면 다른 곳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해쳤겠느냐는 말이다. 사람 잡는 재미를 못 느꼈다면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미노타우로스의 말을 테세우스는 강하게 맞받았다.

“그건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놈들을 해치웠을 뿐이다.”

(중략)

미노타우로스의 커다란 눈이 테세우스를 노려 보았다.

“네가 했던 영웅 행각이란 게 다 뭐냐? 그게 나 미노타우로스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적들과 맹수들을 죽인 것이다. 내가 든 것은 정의의 칼이었고 의로움의 주먹이었다. 나는 포악한 것들을 해치웠을 뿐이다.” (122~127쪽 부분 발췌)

의견 선택	미노타우로스의 말처럼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의 살인은 다를 바 없다. 미노타우로스의 살인과 테세우스의 살인은 의미가 다른 것이다.
생각 쓰기	- 자신의 생각을 이유와 근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서술

## 2.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가) 이카로스는 '자유'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자유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는 아직 때가 일렀다. (중략) 이카로스는 진짜 자유는 오히려 한계 안에, 제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절도가 자유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중략) 이카로스는 내가 나를 이기고 다스리는 것이 자유의 핵심임을 알지 못한 채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은 곳을 올려다 보았다. (중략) 나를 가두는 마음의 울타리를 내 안에 지니지 못한다면, 나는 바깥세상의 진짜 울타리에 갇히고 말 것이다. 그러니 갇히지 않으려면 먼저 가둘 줄 알아야 한다.

(150쪽~151쪽)

(나)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가사 중 일부

널 알게 된 이후 ya / 내 삶은 온통 너 ya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Oh nah)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다고 (Oh nah)

세계의 평화 (No way) / 거대한 질서 (No way) / 그저 널 지킬 거야 난 (Boy with luv)

Listen my my baby 나는 /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니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여긴 너무 높아 /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Yeah you makin' me a boy with luv / Oh my my my oh my my my

You got me high so fast / 네 전부를 함께하고 싶어

Oh my my my oh my my my / You got me fly so fas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 Love is nothing stronger

Than a boy with luv / Love is nothing stronger / Than a boy with luv

특 끼놓고 말할게 /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hall /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니가 준 이카로스의 날개로 /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 Oh my my my oh my my my / I've waited all my life

네 전부를 함께하고 싶어 / Oh my my my oh my my my

Looking for something right /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I want something stronger / Than a moment, than a moment, love

Love is nothing stronger / Than a boy with luv

1) (가)를 참고로, 이카로스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2) (나) 노래에서 '이카로스의 날개'란 소재로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해 봅시다.

## 6~8차시

### 소크라테스 대화로 진리 탐구하기

####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란?

독일의 20세기 철학자 레오나르드 벨슨이 창안하고 체계화한 대화법으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7~8명의 소수 그룹이 일정한 주제로 약 일주일에서 최소 20시간 이상을 대화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를 이끌어낸다. 대화 참석자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며 말하기와 경청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모형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간소화하였다.

##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

-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한다.
- 소크라테스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소크라테스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진지함'을 갖는다.
-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잘못된 앎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훈련이다.
- 소크라테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작이며, 이를 통해 진리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선생님께** 학생들과 함께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특히 소크라테스가 진리 탐구를 위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 '산파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태도를 짚어 주세요.

## 소크라테스 대화법 준비하기

- 한 모둠 당 인원을 6명~10명 사이로 구성한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많으면 발언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 한 모둠 안에서 진행자 1명을 뽑는다. 진행자는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교사가 진행을 맡아도 좋다.
- 진행자의 정식 명칭은 '대화 안내자'이다.
- 대화 안내자는 참여자가 먼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 대화 안내자는 참여자가 규칙을 어기는 경우 적절하게 알려 준다.

##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규칙

-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한다.
- 어떤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줄지라도 참된 것 혹은 옳은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항상 자신의 생각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제시하는 논증에만 동의한다.
- 모든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만 한다.
- 모든 참여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 대화 도중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질문한다.
- 모든 참여자는 문제에 대해서 제시된 의견들로부터 자유롭게 개방적이어야 한다. 타인의 발언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 발언자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현하고 모든 참여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특히 자신의 발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1.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대화 참여자는 등글게 모여 앉고 대화 안내자는 모든 대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큰 전지, 혹은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 모두가 대화 과정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의 주제 중에 모든 대화 참여자가 동의하는 주제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 인생에서 모험은 꼭 필요한가?
- 인간은 저마다의 내면 속에 괴물을 지니고 있는가?
- 비극이란 무엇인가?
- 세상에서 '어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인생에서 모든 만남은 중요한가?
- 용기는 언제 생겨나는가?
- 아름다운 작별은 가능한가?
- 죽음은 삶의 정지 상태인가?
- '선(善)'과 '악(惡)'은 하나인가?

## 2. 모든 대화 참여자가 동의한 주제를 선택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크라테스 대화를 시작합니다.

### 〈 우리 모둠의 주제 〉

#### 〈소크라테스 대화 진행 순서〉

1. 둘러앉은 대화 참여자들은 돌아가면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하나씩 이야기한다.
2. 대화 안내자는 모든 발언의 내용에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기록하며, 대화 참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 이후 모든 대화 과정을 기록한다.
3. 참여자들의 이야기 중 가장 주제의 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다수결로 정한다.
4. 선택받은 답변을 발언한 사람에게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은 해당 답변이 주제의 답으로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질문한다.
5. 질문과 답변을 오가는 사이에서 초기의 답변을 계속 수정한다.
6. 답변의 수정 과정에서 새로운 답변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주제의 질문이 수정될 수도 있다. 대화를 나누기에 더 적합한 질문으로 수정도 가능하다.
7. 대화 시간은 상황에 따라 정하되, 가급적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지며 40분마다 한 번씩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8. 모든 대화가 끝난 후 대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대화 안내자의 기록 과정을 함께 읽으면서 대화 참여자들의 사유 변화 과정을 확인한다.
9. 처음 선택했던 주제 질문을 다시 확인하고 소크라테스 대화에 참여한 소감을 발표한다.



다음을 읽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미궁'은 어떠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지혜의 실'을 붙들고 미궁 속을 걸어갈 것인가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미궁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그리고 친구의 발표를 듣고, 더 현명한 지혜의 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서문(序文)

우리 안에 미궁이 있다.

지혜의 실을 붙들고 그곳으로 들어가 보자. (7쪽)

'다이달로스가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만난 것이 미궁이야. 아니, 자기 안으로 가는 길 자체가 미궁이었겠지. 나 자신을 생각해 봐. 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헤라클레스처럼 이름을 얻는 것?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엔 뭐가 있는데? 신이 되는 것? 도대체 신이란 게 뭘데?'

상상력의 불이 켜진 테세우스는 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신은 신으로서 저 먼 곳에 있었다. 테세우스는 신의 마음을 느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죽음 같은 미로의 숲이 테세우스의 마음과 생각을 풀었다 다시 조립하는 것만 같았다.

'신의 마음속에도 미궁이 있을까? 아니야, 신에게는 미궁이 없을 거야.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다 알 것이고, 그러니 미궁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지. 신은 미궁이 없는 존재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 미궁을 통해 신으로 나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신이 미궁에 빠지면 인간이 되는 건가? 글썄, 어쨌든 미궁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겠지. 그럼 짐승은 또 어떤가? 짐승에게도 미궁이 있을까? 아니지, 짐승에게는 미궁이 없겠지. 신과는 정반대되는 이유로 미궁이 없지. 짐승은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 알려고 하는 자에게만 미궁은 열리는 법이겠지. 그러니까 미궁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지.'

테세우스는 신에게도 짐승에게도 미궁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미로 안에서 느끼던 죽음의 공포도 사라진 듯했다.

'미궁이 없다는 건,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투명하다는 거야. 겉과 속, 앞면과 뒷면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므로 거기에는 삶도 없고 모험도 없고 역사도 없지. 거기에는 찾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안에 미궁이 있으니까 우리 삶이 삶다워지는 거야. 우리 자신을 알아 가는 것, 우리 안의 미궁을 알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모험이고 역사야.' (83쪽~84쪽)

인간이란 자기 안에 미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신이나 짐승에게는 미궁이 없다. 신은 미궁을 간직할 이유가 없고 짐승은 미궁이 무엇인지 아예 모른다.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미궁을,

다시 말해 신 자신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을 품고 있을 턱이 없다. 반대로 짐승은 자기 안에 미궁을 간직할 공간이 없다. 짐승에게는 내면세계도 없고 성찰도 의심도 없기 때문에 미궁이 생겨날 수가 없다. 미궁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되 그 마음의 끝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에게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미궁은 지혜를 추구하되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한 자의 것이다. 다시 말해 미궁은 인간의 마음속에만 있다. 인간이 미궁이다. 인간은 자기 안의 미궁 속으로 들어가 그 미궁의 끝에서 또 다른 자기를 찾아낸다. 자기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더 높은 합일을 향해 도약을 감행한다. (169쪽)

**선생님께** 학생들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글쓰기 활동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미지의 세계인 미궁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혜의 실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 10차시

### 나의 묘비명

묘비명은 한 사람이 세상에 건네는 마지막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너의 묘비명을 미리 써 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 봅시다. 그리고 친구들의 묘비명을 보고 방명록을 남겨 봅시다.

'도대체 나 자신의 죽음이라는 건 뭘까? 내가 죽는다는 걸 나는 여기, 이 깊은 곳에 들어와 처음 생각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어둠 속으로, 저세상으로 내가 정말로 건너가는 것일까. 죽음이 영원으로 가는 깊은 잠이라면 우리는 잠이 들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아니 잊어버린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지돼 버린다. 돌 속에 묻힌 화석처럼 시간이 멈춰 버린다.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도 죽음과 함께 땅속 속에 묻혀 버린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

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다. 죽는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미궁의 어느 귀퉁이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듯이, 죽음은 절대로 진짜로 죽기 전까지는 우리를 덮치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서, 아니면 우리 목덜미에서 어른거리고 넘실거릴 뿐이다.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죽음 그 자체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그렇게 보면, 이 미궁은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통로,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한없이 접근하는 통로임이 틀림없다. 이 미로가 다하기 전에 죽음의 벼랑, 완벽한 망각과 정지의 최종 지점이 나올 것이다. 다른 수가 없어 그곳을 향해 나는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15쪽)

### 〈 참고 자료 1 〉

묘비명이란, 묘표에 새겨 고인을 기념하는 명문(銘文)이나 시문(詩文)을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한국사의 주요 사료인 광개토왕릉비, 문무왕릉비도 묘비명이다. 고대 인물의 경우 묘비명에 가계도나 대표적 업적 같은 것을 역사서보다 상세하게 적어놓아 좋은 사료가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 관직명을 올리는 게 보통이었다.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관직이 없기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학생이라는 의미로 학생부군신위라고 쓴 것이 보통이다. 이런 관습은 최근까지도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경우 5급 사무관 이상들의 경우 묘비에 직급을 쓸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묘비명 때문에 승진을 하려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공직이 아닌 사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대표이사, 전문경영인(CEO) 등의 최고 자리에 오르더라도 관직이 없으므로 '학생부군신위'라고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양의 경우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인이 죽기 전에 새겨달라고 부탁했던 말이나 고인을 기리는 말을 쓴다. 그러나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유언이나 부탁을 통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문양이라든가 암호를 써놓기도 한다.

간혹 고인의 삶을 단문이나 시 등의 문학적 형태로 새겨넣는 때도 있다. 문학적인 묘비명에는 작자와 시대의 취향에 따라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스꽝스러운 것, 때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냉소(冷笑)를 나타내는 것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게임 및 영화 등에서 뭔가 숨겨진 보물창고의 입구나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출처: 나무위키

〈 참고 자료 2 〉

▶ 묘비명 예시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조병화, 시인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버나드 쇼, 극작가·소설가·비평가

음악은 이곳에 소중한 보물을 묻었다. 아름다운 희망도 꿈과 함께.  
-슈베르트, 작곡가

묘비명	방명록